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14호

4-5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뒷박 위로 솟아올라 있던 것, 즉 특수한 경험, 보편적인 것으로 해소될 수 없는 차원이 아닐까요? 보편성 속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삶의 이야기가 오히려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의 삶을 알고 나면 사상도 이해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 사상가 혹은 저자의 대화집, 서신, 평전 등을 읽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가들은 아웃포커싱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흐려진 그 배경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념에 담기지 않고 남은 것들, 특수한 것들, 개별적인 것들은 버려도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은 것들로 이룬 세계가 이야기입니다.

(94p에서 부분 발췌)

<고백의 언어들>(부제 :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 김기석 목사, 복있는 사람, 2024년


달빛재즈콘서트

CONTENTS

2024년 4 - 5월호

04 이달의 말씀

부검 받아야 할 교회가 되기 전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한마음챔프

6년 만에 설렘과 기쁨 속에 열린 '한마음챔프'

연못골 광장

15 1018예수사랑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변시온 성도(중등부 3학년)

16 2030새벽이슬 **장애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백진주 성도(HI청년부)

17 4050광장 **돌아갔다** 한선순 집사(성북2구역)

청년광장

18 HI청년부 **따스한 활동들로 꽉 채운 하이청년들의 봄날**

주님과 함께하는 삶

20 그리스도인의 영화 바라보기(3) **남한산성** 김윤기 목사

22 연동 Before & After (3) **소아회부터 현재까지 연동의 주일학교**

24 연동 북하우스(14) **고백의 언어들(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

25 함께 부르는 찬양(14) **송축해 내 영혼(10,000 Reasons)**

선교

26 도미니카공화국 - **장학생 감사 편지** 김종성, 장은경 선교사
부르키나파소 - **군정부의 주민 학살** 김정남, 박소현 선교사
페루 - **열악한 보건 의료**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베트남 - **Ky Anh 결혼 예배** 엄준환 선교사
멕시코 - **종교 비자 신청**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
인도네시아 - **교환학생 귀국** 두관석, 이선아 선교사
중국(방도 선교사) & 태국(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기도제목 나눔
28 중국어예배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백현홍 성도
29 필리핀예배공동체 **WIN 제자화 프로그램** Abel Raby 목사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0 청소년주일학교

연못골 사람들

38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12) **웹&편집 디자이너 윤새로미**(HI청년부)
40 새신자 어게인(14) **아이와 함께하는 연동교회에 자연스레 스며들며 신앙생활 중입니다**
홍나영 성도(명륜연건구역)
42 종교개혁지탐방 **영국 게일 목사 묘소 방문과 유럽종교개혁지 탐방**
46 지체소식 **바이올린 제작자 안아영, '젊은 장인'으로 주목/이경아 집사, 사업장 이전**
47 지체들
68 6, 7월 행사 안내
69 연동복지재단
70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1 연동컬러링

표지설명

제목: 한마음 챔프
재료: 사진
해상도: 6960 X 4640 **제작일**: 2024년 5월 15일
사진 찍은 이: 송재호 기자 **포토샵**: 연못골 편집부
내용: 한마음 챔프가 열리던 날 셀렘과 기쁨 가득 안고 다같이 운동장에 모여 찍은 단체 사진에 포토샵으로 필림그레인 효과를 넣었다. 한눈에 한마음 챔프의 목적과 내용이 잘 드러나는 사진이라 생각되어 편집부에서 표지로 골랐다.



부검 받아야 할 교회가 되기 전

올해 초, 130년이 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전통과 역사를 가진 교회로 시대를 좇아가지 못한 채 날로 침체하여 부검을 받는 죽은 교회가 되기 전, 소생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은 마치 우리 교회를 그대로 분석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실은, 죽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교회들은 절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꽉 붙잡고 있었다. 내부나 외부의 요인들이 과거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 교회들은 분노와 고집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변하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죽었다. 똑똑히 들으라. 그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분명한 기독교 윤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중요한 교리나 부차적인 교리, 심지어 사소한 교리들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 교회들은 아예 교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위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목사님, 우리 그것 다 해 봤어요" 였습니다. 여러 목회적 플랜을 제시하면, 웬만한 것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안 해 본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을 해도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동교회의 과거 전성기를 어떻게 하든 방어하고 고수하려고 사전에 새로운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톰 레이너의 분석대로, 누군가는 새로운 목회적 제안에 두려움을 나타냈고 혹자는 강한 반발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성경적 진리요 기독교 윤리적 삶이며 중요한 교리와 신앙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대화하며 접점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이 교회에서 내가 해 온 것이 진리요 율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임목사인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 부검을 받기 전, 변화시켜 다시 살아나는 교회, 오히려



김주용 위임목사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느껴질 때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작은 자처럼 느껴졌었고,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갈랐고(출 14:16)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삼상 17:49) 그래서 연동교회를 다시 살아날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변에 주신 모세의 지팡이나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들로 저는 영안을 열고 찾고 있습니다.

연동교회의 강점은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곧 과거 연동교회는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동시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내세울 수 없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고 뿌리 깊은 터전이 있으며 100년 넘게 지켜온 연동교회만의 문화와 가치관이 있습니다.
다시 근원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연동교회는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한국교회 믿음의 역사를 깨닫게 해줄 중요한 역할을 할 교회입니다. 더불어,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라는 꼰대와 같은 텃세만을 부리지 않는다면, 연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어느 곳에도 없는 교회적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동교회는 부검 받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소리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모아 놓은 모든 자산을 교회 수리 및 관리하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부검 받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절벽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돌아서 이전에 걸었던 그 영광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신실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130주년 많은 행사를 앞둔 연동교회가 하늘의 복과 기쁨을 전하는 곳이 되길 기원합니다.

6년 만에 설렘과 기쁨 속에 열린 '한마음챔프'

주제: 새 힘으로(사 40:31)
일시: 5월 15일(수) 오전 8시30분~오후 4시
장소: 경신중·고등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종로구 혜화로 74)

목차

1. 스케치: 온세대가 다 함께 신바람 났던 하루
2. 특징과 평가: 지난 130년을 기억하고 향후 130년을 꿈꾼 행사
3. 다시 보기: 사진과 동영상으로 재연한 한마음챔프
4. 소감: "올해 한마음챔프는 나에게"



기획과 진행: 김종은,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송재호 기자, 박현미 편집장 / 자료제공: 친교부

스케치:

온세대가 다 함께 신바람 났던 하루

6년 만에 연동교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한마음챔프. 5월 15일(수)은 아침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한걱정하며 경신중고교로 향했는데 웬걸, 체육관 앞은 햇살이 가득해 운동회 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바람도 불어 시원했다. 접수는 3, 4여전도회에서 자원해 주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접수처는 교구별로 구분되어 이름표, 행운권, 간식 쿠폰과 티셔츠를 나눠주었다. 1교구는 은혜팀(초록색), 2교구는 감사팀(주황색), 3교구는 비전팀(파란색), 4교구는 열정팀(빨간색), 5교구는 화합팀(노란색)이었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여명선 장로(친교부장)의 인도로 류관식 장로의 기도, 김주용 위임목사의 말씀(이사야 40:31) 후 축도로 마쳤다. 권명석 안수집사(친교행사팀장)의 광고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운동장으로 이동했다. 운동장에서 몸 풀기 후 ox퀴즈를 시작으로 행복나르기(화합팀), 비전탑 쌓기(감사팀), 지네발 릴레이(화합팀), 뗏목 징검다리(은혜팀) 등이 오전에 진행되었다. 소음 신고로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할 만큼 경기와 응원의 함성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점심 식사는 어르신부터 안내되었다. 권사회(회장 양연화 권사)와 친교부에서는 찰밥과 아욱국, 나물, 김치, 멸치볶음, 오징어초무침, 불고기에 아이들을 위한 흰밥, 어묵조림, 소시지볶음과 과일(오렌지)까지 준비했다. 600명 기준으로 준비했으나 예상외로 많이 모인 교인들로 인해 일회용 용기를 더 구입해야 했고 배식 봉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큰 접시째로 먹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운동장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목엔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았고, 간식 탑차를 운영해 누구든 츄러스, 아이스크림, 커피를 간식 쿠폰으로 1회씩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운동장에서는 신발 양궁게임, 대형 블록빼기 게임을 진행해 성공한 교인들에게 선물을 드렸다.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운동장에 준비한 의자를 들고 실내체육관에 모여 개인별 판 뒤집기 게임으로 오후 게임을 시작했다. 행운을 잡아라(비전팀), 낙하산 릴레이(은혜팀), 바람 특공대(화합팀), 전략 줄다리기(은혜팀), 응원전(열정팀)이 진행되었는데, 체육관이라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한마음이 되어 큰 소리로 응원을 펼칠 수 있었다. 게임 중간, 댄스타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흥과 끼가 넘치는 춤솜씨가 정말 대단했다. 전체 게임 1등은 아이들이 많이 참석한 5교구(화합팀)가 차지했고, 2등 3교구(비전팀), 3등 4교구(열정팀), 4등 1교구(은혜팀), 5등 2교구(감사팀) 순이었다.
게임 중간중간 행운권 추첨이 있었는데, 행운권 1등상(키보드)은 최윤우 어린이(최영민 목사 자녀)가 받았다. 1등상 추첨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한마음챔프는 연동교회 1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만큼 외부업체에서 모든 진행을 맡았다. 어린 아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었던 챔프였기에 모두들 즐겁고 신나는 하루였다.

특징과 평가:

지난 130년을 기억하고 향후 130년을 꿈꾼 행사

❶ 이번 챔프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 진행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예년에는 진행을 위해 수많은 교인들이 봉사자로 동원되어 행사를 즐기지 못하고 수고만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부담 없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봉사자를 최소화했다.
특별히 외부 업체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놀이존(에어바운스 3개)과 간식을 위한 먹거리존(츄러스, 커피, 아이스크림), 이벤트존을 운영해 정규게임 외에도 먹고, 쉬고, 즐길 거리들을 풍성히 마련했다. 점심 식사도 맞춤 주문으로 배달받았고 배식과 뒷정리만 권사들의 힘을 빌렸다.

❷ 게임 참가자 구성은 교구별로 5개 팀으로 나누었고 중국어예배반과 필리핀예배공동체도 함께 참여해 승부보다는 서로를 응원하고 단결하는 화합과 친교의 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를 위해 등수와 상관없이 모든 교구에 시상금과 응원상을 똑같이 시상했다.

❸ 6년 만에 전 교인이 모이는 첫 행사인 만큼 한마음챔프 행사를 담당한 친교부 부장 여명선 장로는 교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고심하며 준비해왔다. 올해가 창립 130주년이기에 지난 13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 올 130년을 꿈꾸는 의미 있는 행사를 목표로 이번 행사에 임했다. 동영상 홍보와 주보 광고, 각 기관과 구역 등을 독려한 결과 챔프 당일 600명 이상이 참여했다.

❹ 아래에 친교부와 교인들 평가를 실었다.
* 130주년을 기념하여 연동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였다.
* 외부 업체를 불러서 정말 즐거웠고, 전반적으로 게임이 다양하였으며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했다.
* 점심 식사도 맛있었고 체육대회 역사상 탑 차로 간식을 운영해 주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맛있고 즐거웠다.
* 어린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운영은 부모님들도 함께 즐겁게 했다.
* 오후에 비가 왔지만 빠른 의사결정으로 야외와 실내에서 모두 즐길 수 있었고 교구 간에 서로 응원하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다
* 연령대별 이벤트 행사를 통해 각 연령별로 참가자 모두에게 상품이 주어져 푸짐했다.
* 경기 내용이 명랑운동회와 같아서 점수보다는 즐거움이 더 했다.
* 내년에도 이런 운동회를 또 했으면 좋겠다.
* 어르신들을 위해 의자를 더 넉넉히 준비하면 좋겠다.
* 학교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응원 막대를 준비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도 좋았다.
* 친교부 몇몇 분들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끝까지 음식물쓰레기과 일반쓰레기 처리, 식당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내어 학교 측으로부터 극찬을 들었다.
*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행사를 준비한 TF 팀장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	행사내용	장소	담당자
9:00	접수, 교회버스 운영. 차량봉사	입구	3·4여전도회, 차량봉사팀
9:30	개회예배	체육관	찬양단, TF 담당팀
10:00	행사선언. 기념촬영. 오전게임	운동장	외부업체
12:00	점심식사 및 이벤트게임	급식실, 운동장	권사회, TF 담당팀
13:30	응원전 및 오후게임, 행운권 추첨	체육관	외부업체, TF 담당팀
16:00	시상 및 폐회	체육관	TF 담당팀

〈한마음챔프를 위한 봉헌자 및 봉헌물〉

***봉헌자**: 김대진, 김웅종, 방영민, 여명선, 이수진, 최은주(이상 장로), 김영옥, 양호성(이상 은퇴장로), 김찬진, 송대현(이상 안수집사), 소정훈 권사, 최명식 집사, 김순자3 은퇴집사, 권사회, 안수집사회,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봉헌 액수 총 2,650,000원)

***봉헌물**: 생수 1200개, 단체 티셔츠 600개, 야마하 키보드 1대, 선풍기 1대, 단백질 건강식품 4개, 핑크소금세트 10박스, 상품권 1장(이호진 장로, 한기석 은퇴장로, 안명훈 안수집사, 남미열, 조혜숙, 최민자 권사, 홍영표 은퇴권사, 무명 1인)



다시 보기:

사진과 동영상으로 재연한 한마음챔프

접수와 주차



교구별로 구분된 접수처에서 티셔츠, 이름표, 행운권, 간식 쿠폰을 배부



이른 아침과 폐막 이후, 교통정리로 수고한 주차관리팀

오전 게임



개회선언 때 대표선서하는 박성빈(중3), 정이은(중1) 학생



3인1조 지네발 릴레이-이어달리기는 협동심이 필수



뗏목 징검다리-릴레이로 보트타기는 쉽지 않네요



비전탑 쌓기- 풍선기둥 높이 더 높이 쌓기 게임



운동장에서 합심하여 큰 공굴리기 게임

3인1조 지네발 릴레이

협력릴레이- 뗏목 징검다리

협력게임- 대형풍선만들기

비전탑 쌓기- 풍선기둥 높게 쌓기

공굴리기 게임

식사와 간식







권사님들에 의해 급식실 2, 3층에서 이루어진 점심식사 배식



잔반처리는 다 내게로 오라





인기짱 츄러스는 국경을 넘어 온 세대의 입과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한 손엔 츄러스, 한 손엔 아이스크림~^^



간식 쿠폰

오후 게임


낙하산을 메고도 날아다니는 목사님들~


역시 판 뒤집기는 발로 하는 게 젤이지!


온몸을 다해 새는 틈을 막아라!


천을 좌우로 흔들흔들, 주사위야 멈추지 말아라~

낙하산 릴레이

판 뒤집기 게임

아이들의 즐거운 댄스타임

전략 줄다리기 게임

응원



1교구 응원- 1등으로 달려갑니다



2교구 응원- 연동 감사 화이팅


3교구 응원-청색기 흔들며


4교구 응원-열정!열정!으로 응원상 수상



5교구 응원-화합팀 화이팅


응원전에서 우승한 열정의 4교구



오후 경기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치는 2교구 감사팀



응원을 하면 건강해진다, 맞아맞아-5교구 화합팀

교구별 응원전

행운권과 시상, 폐막



두근두근 행운권 추첨 , 혹시 내가?, 혹시 나도!



폐막을 알리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와 함께 챔프의 하루가 끝났다.



행운권 일등은 바로 나! 키보드를 받은 최윤우 어린이



그리고...



사진으로 수고한 송재호 기자와 김세현 집사



에어바운스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



2024 연동가족 한마음 CHAMP 종합점수판

팀명 / 게임명	은혜팀	감사팀	비전팀	열정팀	화합팀
행복 나르기	80	180	100	100	230
행운을 잡아라	80	40	100	40	60
비전 탑 쌓기	40	100	130	60	70
지네발 릴레이	40	40	60	80	100
바람 특공대	60	60	80	60	100
뗏목 징검다리	100	40	80	40	80
판 뒤집기	—	—	—	—	—
낙하산 릴레이	100	40	60	40	80
전략 줄다리기	100	60	40	80	40
미션 계주	—	—	—	—	—
응원전	80	20+80	150	200	100
합 계	680	660	800	700	860

한마음챔프 종합 점수판



판박이 스티커 놀이

열정 가득한 함성소리

소감:

"올해 한마음 챔프는 나에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단체 티로 단합된 모습이 아름다웠던 날입니다. 비 소식은 까먹은 채 모두가 경기를 즐겼습니다. 승패여부 상관없이 응원으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교구 김민지 성도(하이청년부)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던 교회 아이들의 까르르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너무 반가웠고, 게임과 댄스 등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서들이 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행도 전체적으로 막힘없이 잘 흘러갔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 2교구 김경원 권사(강서구역)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 3교구 임정순 은퇴권사(충신구역) / 좌
연동교회에서 6년만에 운동회를 했는데 너무나 즐겁고 재밌습니다.
/ 3교구 남상옥 명예권사(효제구역) / 중앙
오늘 너무 좋고 점심도 잘 먹었습니다.
/ 3교구 김성실 공로권사(의정부구역) / 우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교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기도 재미있었지만 커피와 츄러스 등 줄 서서 간식 차례를 기다리며 오랜만에 교인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 4교구 김지원 성도(화양자양구역)



'화합팀'이라는 팀명이 딱 어울리게 우리 5교구는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면에서 호흡이 찰떡이었다. 비 예보로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하는 중에 운동장에는 쓰레기 한 점 없이 깨끗이 정돈된 모습을 보며 역시 '멋진 연동인'이란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경기에 이기고 싶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정말 기특했다. 이런 모습들이 한마음챔프가 주는 감동과 행복이라고 느꼈다.
/ 5교구 심혜숙2 집사(성북2구역)



모처럼 열린 한마음챔프를 아이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씽씽구역에서 함께 "화합"하며 온세대가 모여 예배하고, 재미난 게임들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 온 것 같았던 에어바운스와 이벤트, 선물, 커피차, 츄러스, 아이스크림은 정말 감동!! 주님 안에서 함께한 연동의 추억 한 페이지가 감사한 시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 5교구 임윤선 집사(씽씽연동5구역)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변시온 성도
(중등부 3학년)

작년 12월, 2024년 중등부 회장에 당선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됐다는 사실이 떨림과 동시에 한동안은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중등부 회장을 맡아줬던 언니들이 너무나 잘해주었기에 그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해낼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건지 고민도,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한 임원으로서의 첫 활동인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날까지 밤을 새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처음이었기에 실수투성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무언가 꽉 차는 느낌이 들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막상 부딪쳐본 중등부 임원 활동은 꽤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한 번 성장의 기회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느꼈습니다. 중등부 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활동한 2024년은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좋은 경험으로 저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등부 회장으로서 있으며 한 공동체의 대표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믿고 뽑아주심에 너무 감사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담감에 눌리기도 하고 이 자리를 맡기에는 신앙심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묵묵히 함께해주는 임원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등부 임원이었던 언니, 오빠들 덕분에 중등부에서 쌓은 좋은 추억과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잠깐 스치는 사람이 될 테지만 그럼에도 이 잠깐을 좋은 기억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많이 서툴지만 임원 친구들인 한빛이, 성빈이, 민영이, 하민이와 함께 중등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친구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회장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2024년에도 우리 연동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백진주 성도
(하이청년부)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3학년 백진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키워 보육계열 특성화고로 진학하였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중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한순간에 특수교사라는 직업의 소명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애 유아들을 만나면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유아가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심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특수교사가 되어서도 지식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유아특수교육과에 진학하였습니다.

현장 관찰실습을 하면서 특수학교에서 휠체어를 타는 지체 유아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장학습 활동 중 신체 활동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편으로 '지체 유아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없겠다.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감선생님께서 지체 유아와 서는 연습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생각과 관련 전공 경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특성에 적절한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혹자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유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넓은 사회를 경험시키고,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세상을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교사는 매우 중요한 '동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아직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도 앞으로 더 많이 만나고 경험할 장애 유아들과 함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라는 것이 아주 조금은 다르지만 장애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듯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묵묵히 따르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갔다



한선순 집사
(성북2구역)

사랑하는 이들의 구슬픈 탄식을 깔아 요를 삼고
사랑하는 이들의 애달픈 눈물을 덮어 이불을 삼아
오랜 시간 누었던 자리를 떨치고 훌훌 돌아갔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욥기 34:14-15)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시편 39:4)

기도한다
돌아가는 이들을 배웅하고 떨구어놓은 자리를 치우며 손을 모은다
보혜사 성령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안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한복음 14:16)

번민한다
슬픈 신음과 탄식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어두운 밤
병고를 함께 버티며 지쳐가는 보호자들의 쉼을 돕는다
하얗게 지새운 밤이 지나고 주님의 날 새벽이 밝아오면
엄지손톱보다 조금 큰 눈꺼풀이 온 세상을 덮어 내리고
천근만근 납덩이 같은 몸뚱이가 잠을 부른다 졸립다 졸립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드려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긍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이들을 보고픈 마음

승리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따스한 활동들로 꽉 채운 하이청년들의 봄날

| 김박한듀오 이색심방



(좌로부터)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국민대, 여의도 심방

3월과 4월, 하이청년부의 두 분 목사님(김윤기 목사, 박주안 목사)께서 청년부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심방을 가셨다. 대학생 청년부원들을 위해서는 3월 15일(금) 서울대학교, 3월 27일(수) 이화여자대학교, 3월 28일(목) 성균관대학교, 4월 12일(금) 국민대학교까지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 만나셨고, 4월 18일(목)에는 직장인 청년 심방을 위해 여의도에서 청년부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청년부원들이 평일에 시간을 보내는 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청년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첫 모임



단기선교 단체 티를 입고 사진 찍은 첫 모임

3월 17일(주일)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이 가나의 집 아가페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선교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비롯해 선교팀원들의 소개가 있었고, 선교 단체 티셔츠를 배부하는 등 선교를 위한 준비 시작 시간을 가졌다.

| Hi산악회 인왕산 모임



3월 23일(토) Hi산악회 동아리가 인왕산 등반모임을 가졌다. 청년부원들이 많이 참석해 함께 인왕산에 올라 야경을 감상하고 친목을 다졌다. 등반 후에는 다 함께 족발모임을 가지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

| 세대를 넘어 시대를 말하다



3월 24일(주일) "세대를 넘어 시대를 말하다"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 강사로 모신 장동철 안수집사로부터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전달 받은 시간이었다. 특강이 끝난 후 전체 셀모임을 진행하였는데, 맛있는 핫도그와 햄버거를 간식으로 준비해주셔서 청년부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러브릿지 온(溫)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러브릿지 온 봉사활동이 3월 30일(토), 4월 27일(토)에도 지속되었다. 러브릿지 온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창신동 쪽방촌에 도시락을 전하는 봉사로, 많은 청년부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러브릿지 온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 연동숭연합 체육대회



동숭교회 청년들과 함께

4월 21일(주일)에는 동숭교회 청년부와 연합하여 "친해지길 바라"라는 이름으로 연동숭연합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일 예배 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풋살, 발야구, 짝피구 등 다양한 운동경기를 함께하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운동경기 후에는 치킨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어버이주일에 어르신들 식사 대접





5월 12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하이청년부는 70세 이상 교인분들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예배에 오시는 교인분들께 카네이션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부의 여러 인원이 참여하여 함께 어버이주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 위임목사님께서 청년부에 간식 제공



5월 12일(주일) 김주용 위임목사님과 이영우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께서 하이청년부에 간식으로 피자와 닭강정을 제공해 주셨다.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 하이청년들은 오병이어의 집에 셀끼리 모여 앉아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셀원들과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후원부스



5월 12일(주일)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이 교회 마당에 후원부스를 열었다. 커피와 주스를 준비해 성도들께 음료를 대접하고 기도카드를 나눠드리며 중보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렸다. 얼마 남지 않은 선교를 위해 연동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따스한 시간이 되었다.

남한산성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왕상11:39)



- 장르: 드라마
- 감독: 황동혁

영화 〈남한산성〉.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소설가 김훈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영화적 상상력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일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대사 하나하나가 어찌 이렇게 숨 막힐 수 있는가 하고 감탄했다. 관전 포인트는 이조판서 최명길(이병헌)과 예조판서 김상헌(김윤석)이 맞받아치는 대사에 있다. 이판 명길은 왕권과 백성들의 목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의 왕인 인조(박해일)가 청나라 황제인 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충신으로 등장한다. 이에 반해 예판 상헌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치욕은 조선의 왕으로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며 오직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외치는 또 다른 충신의 역할이다. 클라이맥스에서 인조를 앞에 두고 두 충신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낸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부디 전하께선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하지만 인조는 이미 마음을 정한 채로 이 둘을 바라본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 대사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간적이고 정직하나 동시에 가장 실망스럽고 치욕스러운 말이 아닐까 생각했다.

영화 내내 백성들과 군병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추위라는 자연적인 조건에 대한 인조와 사대부의 대처는 관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상 김류(송영창), 곧 늙은 여우와도 같은 삿벼슬아치이다. 군병들이 동상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 안으로 들어온 종친과 사대부들에게서 여벌의 옷가치를 거두어 군병들의 몸을 감싸게 하자는 의견에, 영상은 그것은 체통을 허무는 일이고 왕실과 사대부가 위엄을 잃고 백성들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거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정작 군병들과 백성들은 차가운 성벽 말고는 의지할 곳이 이미 없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 민촌의 초가지붕을 벗기고 성첩에서 온기를 담당하고 있는 가마니를 몽땅 거두어 말먹이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는 그의 모습에는 한 치의 고민이나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인조는 반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정한 권유를 두 번이나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각 위원들이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할 때 수장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김윤기 목사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어 온 사실. 결국 영상은 이어지는 잘못된 판단과 귀 막음으로 군사 삼백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물귀신 작전으로 수어사 이시백(박희순)의 충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초관 이두갑(진선규)의 목숨을 앗아간다. 인조는 자신의 내각에 얼마 남지 않은 충신들이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 군병들과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예판뿐이라는 사실.

살고자 하는 인조, 실리에 따라 줄타기를 일삼는 벼슬아치들, 죽음은 무거운 것이라며 살고자 하는 인조와 함께 오랑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판, 그리고 죽은 것 같이 사느니 차라리 싸우겠다는 예판, 이 갈림길에서 관객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존재 자체"를 더욱 앞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존재 이유"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아닐까. 이판과 예판의 마지막 대화는 그 선택권을 관객에게 넘겨준다:

"왜 삶의 길을 두시고 굳이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까? 예판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에 정녕 삶이 있는 것입니까?"
"이판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란 무엇이오?"
"살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죠."
"그 길은 백성의 길이오, 임금의 길이오?"
"백성과 임금이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나도 그리 생각했소. 하지만 틀렸소.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말이오. 그것이 이 성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오."

예판은 이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그것은 모두가 죽어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뜻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왕이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사대부가 군병들의 추위를 헤아리며, 군병들이 어명을 죽기까지 받들고, 백성들이 왕을 진정 하늘과 같이 여길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 새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었을까. 하지만 누가 그 길을 먼저 가야 하는가. 바로 왕이다. 이것이 예조판서 김상헌이 꿈꾼 조선일 것이다.

꽃피는 봄, 우리의 새벽 열왕기 묵상이 깊어지고 있다. 여러 왕들의 모습이 조명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좋은 왕, 정말 좋은 리더십이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글을 마무리하며 영화의 민들레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루(조아인)를 생각한다. 칸의 홍이포가 남한산성 성벽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을 때 상헌은 나루를 꼭 끌어안고 보호한다. 그때 그의 뇌리에는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 어쩌면 죽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명길의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이 녹고 나루터에 다시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과연 "나는 살고자 한다"고 말했던 왕의 온기가 나루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었을까.

소아회부터 현재까지 연동의 주일학교

연동교회 주일학교의 뿌리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5월 5일 새로 봉헌한 교회당에서 주일학교의 전신인 소아회를 설립했다. 어린이 기독교 교회교육을 목적으로 한 소아회는 성경반으로부터 시작해 주일학교 및 교회학교의 모체가 되었으며 소아회 명칭은 게일 목사가 지었다. 1914년 전체 교인수가 7백명일 때 소아회 어린이수는 921명이었으며, 당시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선두주자로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였다. 소아회의 교사(당시 호칭 반사)는 주로 경신, 정신 학교 학생들이었다. <예수교회보> 주필인 김종상 집사가 신문에 주일공과를 게재하고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가르치도록 했다.

1918년 소아회를 유년주일학교로 개명하였고 1930년대 초반 주일학교에는 장년부, 고등청년부, 소년중등부, 유치초등부 등 4개 부서가 있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성경동화를 들려주고 가르쳐주며 부모까지 전도했고,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중심의 교회로 성장했다. 1960년대 주일학교는 장년부,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5개 부서였으며 유년부만을 일컬어 유년주일학교라 했다. 1980년대 주일학교는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9개 부서를 포함하였다. 2024년 현재 청소년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성되어 있다.

1923년 9월 8일 교육관을 개관하여 주일학교 교육에 박차를 가했고, 이외에도 예배당, 전도실, 선교사실 등을 활용해 각 부서별로 성경공부를 진행했다. 1976년 1월 18일 3층으로 교육사회관 입주예배를 거행했으며 1994년 1층을 더 증축하여 현재 유년부와 초등부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 일부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주일학교 예배와 모임은 110주년기념 가나의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연동의 주일학교는 여름성경학교, 성탄절 축하예배, 전도 및 선교, 불우이웃돕기, 문학행사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기독교 신앙 교육에 앞장서 왔다. 현재에도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신앙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예배와 성경공부, 선교, 음악, 문화,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육에 힘쓰고 있다. / 오수희 기자

< 2024년 연동교회 주일학교 >

부서	대상	예배시간	장소
영아부	3세까지	주일오전 11:30 -12:30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
유아부	4-5세	주일오전 11:30 -12:30	가나의집 2층 유아부실
유치부	6-7세	주일오전 11:30 -12:30	가나의집 2충 유치부실
유년부	초1-3학년	주일오전 11:30 -12:30	나사렛예배실(4층)
초등부	초4-6학년	주일오전 11:30 -12:30	베들레헴 예배실(3층)
어린이부(어와나)	7~13세 통합반	주일오후 01:30 - 03:00	가나의집 지하2층 열림홀
중등부	중학생	주일오전 11:00 -12:30	가나의집 지하1층 다사랑조이홀
고등부	고등학생	주일오전 11:00 -12:30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제2회 전국주일학교대회(대회장: 장홍범 목사) 연동교회 앞- 19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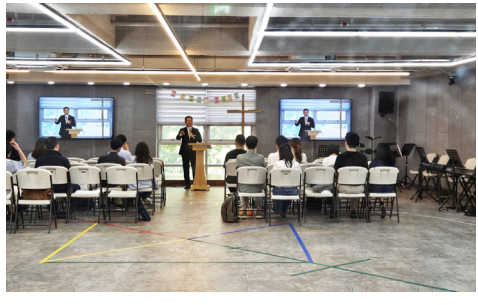
1960년도 하기아동성경학교(교회 마당)



2019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교회 마당)



교육사회관 증축(1994년)



고등부 교육장소(가나의집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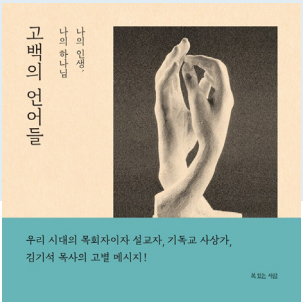
유치부 교육장소(가나의집 2층)



어린이부 교육(가나의집 지하 2층 열림홀)

고백의 언어들(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

김기석 지음/복있는 사람/2024년 4월



| 소개의 글

저자는 정답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어둠이 깊음을 탄식하며, 도스토엡스키의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에 나오는 무신론자 이반을 책의 화자로 자주 언급하며 신과 인간과 진리를 말합니다. 이반은 어린아이 하나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는 진리라면 무가치하다고 말하며, 값싼 조화를 택하는 대신 보상받지 못한 분노를 품고 살겠다면서 신에게 조화로운 세상의 입장권을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두 세계관의 충돌 현상을 다루며, 이반이 언급한 '대심문관'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종교 재판관에 의해 이단이나 마녀로 낙인찍힌 이들을 불에 태우는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를 배경으로 서사를 다루며 다음을 강조합니다.

"이미 권력으로 변한 기독교 세계는 재림한 예수를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를 추방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p.352).

| 목차

서문 / 인간이라는 수수께끼 /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다 /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 /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

| 주요 내용 발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방황이 상수인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p.16)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복잡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새로운 세계에 자기를 개방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구축한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p.30)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빛과 어둠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시인이었고 예언자들도 시인이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현실 속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세계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지향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시인은 불가능에 짓눌려 살기보다는 실낱 같은 가능성조차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하나의 깜빡임도, 그런 희미한 빛 하나 만드는 것도 소중합니다. 반딧불이 하나는 연약하지만 반딧불이들이 모여 함께 깜빡거리면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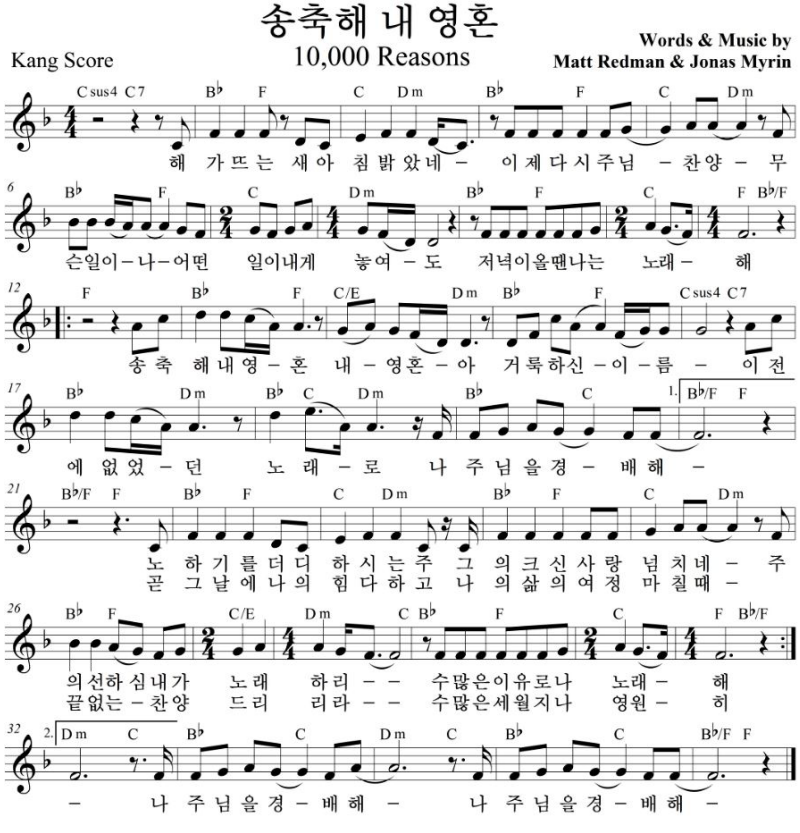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인간답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감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중심으로 우뚝 서지 않는다면 인류는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까요? (p.359)

/ 진상협 기자

송축해 내 영혼
(10,000 Reasons)

연동교회 유튜브 채널
4월 28일 3부 예배 영상
'송축해 내 영혼(트리니티밴드)'
링크: https://naver.me/G5Ja4b9x

'송축해 내 영혼' 찬양은 영국의 Matt Redman과 스웨덴의 Jonas Myrin이 공동 작곡한 예배곡으로 2011년 킹스웨이 뮤직에서 발매된 'Ten Thousand Reasons' 앨범에 처음 수록되었다. 시편 103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발견하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넘쳐나길 소망한다. / 주태성 기자



도미니카공화국 - 장학생 감사 편지 김종성, 장은경 선교사



Ai Youn Dong 15/12/2023

Que la Graci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el Amor del Padre y la Comunión del Sto. Espíritu Santo, sea con cada uno de ustedes.

Doy gracias a Dios por su muchas bendiciones, y doy gracias a Dios por ustedes son parte de mis bendiciones. Ruego a Dios los bendiga, por tantos favores para conmigo.

Estoy muy contenta porque Dios me ha permitido ser del equipo de servidores de la iglesia, también porque formo parte de la directiva de sociedad de jóvenes de mi iglesia para este nuevo año 2024.

En la universidad todo va bien gracias a Dios y a ustedes.

Pido la oración para que Dios me ayude a cumplir con esta meta y nuevos que tengo por delante. De mi parte yo siempre oro por ustedes y siguiré orando fielmente por ustedes.

Nuevamente gracias por todo lo que ustedes hacen por mi. Dios les bendiga y les prospere y les de una Feliz Navidad y Próspero Año Nuevo.

De: Magdalena Matos

Para: Iglesia Youn Dong

도미니카공화국 복음교단 총회장학위원회에 속한 장학생들을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하나하나 번역해서 보내드려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학생들이 손수 자필로 쓴 그들의 편지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장학생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동교회는 대학생 4명을 후원함.

부르키나파소 - 군정부의 주민 학살 김정남, 박소현 선교사

얼마 전 뉴스에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정부가 테러 집단을 돕고 있는 두 마을을 지정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220여 명의 사람을 학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에 대한 여부를 문의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들의 가족이 테러와 관련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테러가 종식되고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관련 기사 링크

https://naver.me/GgP4cAhf

페루 - 열악한 보건 의료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막내 세아가 뎅기에 걸려 학교를 일주일 넘게 출석하지 못했고, 안선교사도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한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박선교사는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페루 현지 병원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전 담석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쇼크 증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페루의 열악한 보건 의료 수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진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아프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가족들이 아플 때마다 두려움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번 세아와 안선교사가 아프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자꾸 배가되게 하여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 Ky Anh 결혼 예배 엄준환 선교사

지난 주말 ASK 센터에서 드럼을 배우는 Ky Anh의 결혼 예식에 다녀왔습니다. 햇살을 품은 하얀 구름 같은 신랑과 신부의 미소가 예배당 가득 빛이 났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걸 보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Ky Anh아, 찬란한 이 순간이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정점으로 가는 문이 되길 바란다."



멕시코 - 종교 비자 신청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

처음 사역지인 브라질에서는 제가 영주권자라서 가족 비자는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서 개신교 선교사라서 종교 비자 신청 과정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그동안 그들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 임시 거주 비자를 신청하면서 또 고생을 좀 했지만, 여러분의 중보 기도 덕에 잘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저희 부부 종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3년짜리로 받을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 교환학생 귀국 두관석, 이선아 선교사

2023년 1월 한국 백석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트리스노(신학과)와 유미야티(기독교교육)가 학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네시아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하나님께 좋은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도 제목
중국 (방도 선교사)	1. 진행하고 있는 교회 규정 공부를 통해 동행 단체의 지체들이 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감람산 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2. 해외 유학생들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하여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무장되도록 3. 기독교 고전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섬김으로 학생들이 잘 세워지도록 4.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태국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1. 신학생들이 개학 전까지 자신의 마을에서 가정을 돌보며, 교회와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 4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건강 지켜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도록 2. 21노회 소속 교회(45개) 전도처, 어린이 기숙사들을 위해 -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영적 성장을 통해 교회도 내실있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3. 신학교와, 21노회 사역자들, 농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커피 프로젝트의 성장을 위해 4. 태국어와 강의 준비에 매진해 다음 학기 신학교 수업과 설교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5. 현중(18세)이와 현진(15세)이가 11학년과 10학년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중국어예배반은 5월 12일(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 비교적 나이 많은 장년층의 한국인 교인들과 중국인 근로자, 유학생들로 구성된 중국어예배반이지만,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심정을 담은 특별 찬양과 감사 편지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 땅에서의 외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격려하는 교회 식구들의 사랑을 통해 유학생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과 기도, 예배와 행사 준비 등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유학생들은 꽃과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예배를 통해 국적과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연동교회 중국어예배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방의 빛을 전하는 교회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생의 모델로 성장하며,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사랑과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길 기도하고 있다. / 백현홍 성도(중국어예배반)

WIN 제자화 프로그램











제자훈련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화는 가장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품,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더욱이 우정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보류되었지만,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 1월 21일에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3월 24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WIN 제자화 프로그램”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I CONNECT” 단계에서는 우정을 추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I BELONG” 단계에서는 그들과 관계를 형성한 후 그들을 공동체 안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교회로 안내합니다. “I BELIEVE” 단계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키우며 여기에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도 소개합니다. ““I SERVE” 단계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의 태도를 발산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I LEAD”에서는 그들이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두 달간의 준비 끝에 졸업식과 졸업식 축하 순서로 마무리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섬기는 이들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자도는 공동체나 세상을 그리스도께 데려갈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기초를 놓는 데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자도의 목표에 충실한 우리의 주제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 글: Abel Raby 목사, 번역: 이학주 집사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서로 섬겨주어라(요13:15)	세족식
	24	호산나! 호산나! (눅19:38)	종려주일, 호산나! 예수님 환영해요
	31	내가 들려줄게(눅24:7)	부활주일, 교사 연극, 에그헌팅, 가정예배 사진전(마당, 가나의 집)
4	7	나를 만져 보아라(요20:28)	4월 말씀 손유희 배우기, 말씀 놀이(촉감놀이)
	14	토닥토닥~ 예수님(요21:6)	4월 생일축하(김이안, 김준원, 장온유)
	21	꼭 꼭 약속해 (행1:8)	말씀 집중 주일
	28	궁금해 궁금해(요14:26)	임산부 축복기도, 새친구 노재헌 환영
5	5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 마당잔치
	12	사랑해요 감사해요(출20:12)	어버이주일, 새친구 홍신희 환영, 5월 생일 축하(곽이안, 방주안, 우지훈)

/ 박윤신 부감




새로운 친구를 환영해요(노재헌, 홍신희)




생일을 축하해요(장온유, 방주안, 곽이안)



세족식



호산나 예수님 환영해요



부활주일 에그헌팅

〈 유아부 〉 부장 : 천재윤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제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요13:15)	셀로판지 십자기 만들기
	24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눅19:38)	종려주일 말씀활동, 반별말씀암송
	31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눅24:7)	부활주일 에그헌팅, 가정예배 사진전
4	7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요20:28)	말씀찬양배우기, 대그룹활동
	14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요21:6)	베드로 물고기 낚기
	21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행1:8)	성령의 머리띠 만들기
	28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요14:26)	반별 말씀암송
5	5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12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출20:12)	생일파티, 간식나누기

/ 정윤정 부감



셀로판지 십자가 만들기



종려나무 흔들어 예수님 맞이



부활주일 에그헌팅



베드로처럼 물고기 낚기



성령의 머리띠 만들기

〈 유치부 〉 부장 : 배광미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제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요13:15)	반별공과
	24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눅19:38)	반별공과/종려주일 예배/ 말씀암송잔치
	31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눅24:7)	반별공과/부활주일 에그헌팅/가정예배 사진전
4	7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요20:28)	반별공과/4월 생일잔치
	14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요21:6)	반별공과
	21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행1:8)	반별공과/교사 월례회
	28	깨닫게 하시는 성령니ㅁ(요14:26)	반별공과/말씀 암송 잔치
5	5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반별공과
	12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출20:12)	5월 생일잔치 /부모님 비타박스 만들기

/ 최정미 교사





엄마, 아빠 사랑해요 / 감사해요



온세대 주일예배



에그 헌팅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섬기신 예수님(요13:15)	사순절 5, 반별 공과활동, 교사 월례회
	24	입성하신 예수님(눅19:38)	종려주일, 반별 공과활동
	31	부활하신 예수님(눅24:7)	부활주일, 반별 공과활동
4	7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고백(요20:28)	반별 공과활동, 4월 생일잔치
	14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요21:6)	반별 공과활동
	21	함께하시는 성령님(행1:8)	반별 공과활동, 교사 월례회
	28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요14:26)	반별 공과활동
5	5	담대하게 거침없이(삼상 17:45)	어린이 주일 온세대 예배, 서울노회 어린이 대회 참가(11일)
	12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출20:12)	반별 공과활동, 5월 생일잔치

/ 성창원 교사



4월 생일잔치


온세대 주일예배



서울노회 어린이대회 수상자



5월 생일잔치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특종! 그날 밤 그 사건(요13:15)	사순절 다섯째 주일, 사순절 말씀 읽기, 반별 묵상말씀 암송하기
	24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눅19:38)	종려주일, 사순절 말씀 읽기, 반별 묵상말씀 암송하기
	31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눅24:7)	부활주일 예배, 부활절 기념 영화('선 오브 갓') 관람, 부활절 달걀 꾸미기 행사
4	7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요20:28)	반별공과
	14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요21:6)	야외예배(대현산배수지공원)
	21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행1:8)	반별공과
	28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요14:26)	3월 • 4월 생일자 축하, 새 친구(조규린) 환영
5	5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마당잔치(초등부 먹거리 : 아이스크림, 감자핫도그) / 11일 : 서울노회 어린이 대회 참가
	12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출20:12)	어버이주일, 부모님께 손편지 쓰기 15일(수) : 연동가족 한마음 챔프 참여

/ 양진실 기자



함께 사순절 묵상말씀 암송하기



친구에게 줄 부활절 달걀 꾸며요



공원 축구장에서 야외예배 드려요



야외예배에서 신나게 달려요



온세대 예배 연합찬양대에서 찬양 연습 중



어린이주일 마당잔치에서 아이스크림 담당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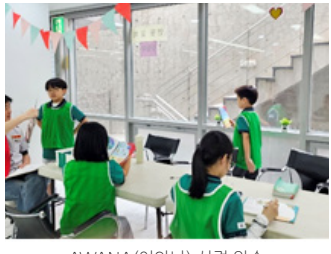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AWANA 4주차 말씀: 명령을 어기다 1 (삼상 15:2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24	AWANA 5주차 말씀: 명령을 어기다 2 (삼상 15:2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31	AWANA 6주차 말씀: 중심 (삼상 16:7)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4	7	AWANA 7주차 말씀: 용감해지는 방법 (시 118:8)	AWANA 올림픽(5/18) 설명회(4/6, 방주교회)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교사 전체 회의
	14	AWANA 8주차 말씀: 친구와 원수 (요 15:1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올림픽(5/18) 출전 광고
	21	AWANA 9주차 말씀: 사랑하는 방법 (요 15:1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올림픽 출전자 선발 (T&T 11명)
	28	AWANA 10주차 말씀: 용서하는 방법 (마 5:44)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올림픽 출전자 소집 훈련
5	5	온세대 예배(어린이부 휴무)	영수증 사진기 운영(더게일홀) AWANA 올림픽 출전자 소집 훈련
	12	AWANA 11주차 말씀: 말씀대로 사는 방법 (마 5:44)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AWANA 올림픽 출전자 소집 훈련

/ 윤종훈 부장



AWANA(어와나) 게임 활동



AWANA(어와나) 성경 암송



AWANA(어와나) 핸드북 시상식



AWANA(어와나) 오늘의 MVP 시상식



온세대 예배 - 영수증 사진기



AWANA(어와나) 올림픽(5/18) 출전 선수 훈련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섬기러 오신 예수님(요13:15)	세례입교교육 2주차, 사순절 마가복음 성경 통독
	24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눅 19:28-40)	세례입교교육 3주차, 사순절 마가복음 성경 통독
	31	부활하신 예수님(눅 24:1-10)	부활주일 달걀 나눔, 세례입교식, 성찬식, 중3 전체 식사
4	7	흑역사와 백역사(요 21:15-19)	4월 생일파티, 선교비전트립 모임
	14	의심과 믿음(요 20:25-29)	다친 친구를 위한 위로 영상 편지 촬영,기독교 가치관 교육팀 특강
	21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요 14:16-17)	선교비전트립 바자회
	28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행 8:26-39)	전도 시상,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준비
5	5	하나님의 나팔꽃(삼상 17:45)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마당잔치(실내) 활동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엡 6:1-3)	5월 생일파티, 선교비전트립 모임

/ 권광호 전도사


중등부 워십팀과 함께하는 찬양


성례주일, 성찬식


세례입교교육 문답


생일 축하해요~!


선교비전트립 모임(한강 나들이)


선교비전트립 바자회 및 식사


다친 친구 위로 및 응원 영상 촬영


선교비전트립 바자회 구두닦이 활동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 전통놀이 활동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7	Not Success, But Service(요13:1~15)	사순절 성경통독(사도행전)
	24	왕의 입성(눅19:28~40)	사순절 성경통독(사도행전) '패션오브크라이스트' 영화 관람
	31	절망의 끝, 소망의 시작(눅24:1~10)	사순절 성경통독 시상 부활절 달걀 나누기(대학로 일대), 30일(토) 교사월례회
4	7	나를 따르라!(요21:15~19)	4월 생일자 축하, 밴드 우수 참여반 시상 선교비전트립 모임(찬양, 기도회, 그룹별교제)
	14	주를 찾는 자(요20:24~29)	가치경매활동
	21	우리 안에 계시는 분(요14:16~17)	선교비전트립 바자회, 성교육 설문지 중간고사 격려 간식꾸러미 나눔
	28	HOLY SPIRIT WIFI ON(행8:26~39)	성교육 'We are story 이야기해'
5	5	하나님의 나팔꽃(삼상17:45)	온세대 예배, 탕후루 나눔
	12	부모공경? 리얼 갓생 살기(출20:12)	5월 생일자 축하, 최현준 찬양간사 환영, 선교비전트립 모임(찬양, 기도회, 그룹별교제), 11일(토)수련회 장소 답사 및 교사월례회

/ 이승원 부감



최현준 찬양간사 환영





부활절 대학로 달걀나눔을 위한 준비



성교육- 'We are story 이야기해'



선교비전트립 바자회



웹&편집 디자이너 윤새로미

| 나의 디자이너 도전기

공부밖에 모르는 이과생이었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학 시절엔 실내 건축 디자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과 공기업에 근무할 기회가 생겨 연달아 인턴직으로 근무했지만, 알바생일 때 보던 것과는 또 다른 기업의 이면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이렇게 살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디자인만큼은 절대 하기 싫다며 학원 강사로도 뛰어봤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일임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연동교회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웹 & 편집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일 년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작에 참여하며 커리어 중 가장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화장품 제조 회사를 거쳤다가, 한 스타트업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추천받아 첫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6년 반 동안 10명의 팀원을 이끄는 팀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리더이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무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팀원 관리와 다른 팀, 상사와의 소통도 잘 해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행사 특성상 야근이 잦은 데다, 다른 팀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10년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힘든 날들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했고, 믿음이 없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엔 늘 돕는 손을 보내주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높은 수능점수나 엄청난 스펙, 안정적인 직장 등 다른 어떤 수단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청년의 때가 너무 힘들거나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함께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웹/인쇄/광고물 기획 및 디자인 제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8131-1136으로 연락해 주세요.

/ 기획 및 사진: 송재호 기자





아이와 함께하는 연동교회에 자연스레 스며들며 신앙생활 중입니다



홍나영 성도 (명륜연건구역)

2022년 6월에 아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상 각자의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홍나영 성도를 소개합니다. / 진상협 기자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결혼 전까지 부모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함께 다녔고, 결혼과 동시에 타지역으로 나오면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잣대가 높았던 탓인지 한 가지가 마음에 들면 다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임신, 출산의 과정과 코로나19 시기까지 겹치며 육아에만 전념하다 보니 제 신앙의 중심에 흔들림과 나태해짐이 느껴졌던 와중에 연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다 보니 어떠한 일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지만,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방송팀원으로도 봉사를 했었습니다.

Q. 연동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2021년 코로나19 시기에 돌 지난 딸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집 근처의 연동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참석하진 못했지만 '드보라의 방'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걸 알고 거의 반년 이상의 기간 동안 딸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항상 은혜가 되어 주일날이 되면 자연스레 연동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왔고, 저와 딸아이 둘이서 '드보라의 방'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신 김세현 집사님께서 다가와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Q. 연동교회에 적응하기까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새신자로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가족들도 눈에 들어오면서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교회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잘 융합된 모습의 교회로 느껴지기에 보기에 너무 좋고,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남편은 현재 타교회 음향 간사로 일하고 있어 가족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석하는 교회도 남편의 역할이 있기에 각자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의 깊이를 채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주일예배 외에도 새벽예배, 수요예배 등 예배의 자리에 좀 더 가까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께서 기스트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수술 부위의 회복이 더딘 상태로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병상에 계신 시어머니의 온전한 회복과 친정부모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며, 연동교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저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 소속 직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평일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힘이 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필요한 일꾼으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2024년 연동교회의 목회지침과 같이 예배의 신앙, 소명의 신앙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맞는 성도로서 남은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연동교회에 더 잘 스며들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 **게일 목사 묘소** 방문과 유럽**종교개혁지** 탐방



루터가 2년 동안 은신하며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성

올해 교회 창립 130주년이 되며 그 사업의 하나로 재단장한 영국 랜스다운에 있는 게일목사님 묘소와 루터의 독일과 얀 후스의 체코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지 등을 김주용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26명의 교우들이 지난 4월 8일(월)부터 20일(토)까지 다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송요한 선교사님이 시무하는 영국 브리스톨의 레드랜드파크 유알씨 교회(Redland Park URC church)를 방문해서 어린이 성경책과 학용품 등 선물을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후 게일 목사님의 묘소가 있는 랜스다운 묘지를 찾아가 새로 단장한 묘소 앞에서 예배드리고 게일목사님의 손녀분에게 교회에서 준비해간 묘지단장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 함께 게일 목사님이 생전에 사시던 제임스 스퀘어와 연동교회 은퇴 후 10년 동안 사역하신 트리니티교회(현재는 바스건축박물관Bath architecture museum)을 방문하는 등 우리는 송요한 선교사님 가족들과 2박 3일을 함께하며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선교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무척 섭섭하고 안타까워 돌아온 지금까지도 선교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와 얀 후스의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에 감사하며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참수터, 세 분수 교회, 바울이 갇혔던 감옥, 처형 기둥 등을 둘러보며 오늘의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정신을 되새기는 은혜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지 지원은 연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사역이라는 김주용 위임목사님 말씀처럼 비록 우리는 잠깐 그곳에 갔다 왔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게일사랑" 후원회를 만들게 되었으며, 함께 기도하는 작은 선교나무를 심고 가꾸게 되었습니다. / 정영희 권사(제기청량리회기구역)



새 단장한 게일 목사 묘소 앞에서

***주요 일정**: 1. **영국 브리스톨**, 송요한 선교사 사역지(브리스톨 한인교회:BCK) 방문/ 2. **영국 바스**, 게일 목사 은퇴 후 장로로 시무한 교회 및 마지막 거처와 새 단장한 게일 목사 묘소 방문/ 3. **루터 행적을 쫓아** 독일 방문(생가, 임종했던 방, 심문 받던 독일 보름스 제국회의장, 성경을 독어로 번역한 바르트부르크성, 사제 서품을 받은 에르푸르트 대성당, 95개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 내부교회, 루터박물관 등)/ 4. **얀 후스를 찾아** 체코 방문(얀 후스 동상, 얀후스 박물관, 후스광장 등)/ 5.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거쳐 **이탈리아 로마** 방문(바티칸 시국 박물관, 시스티나 예배당, 성 베드로 대성당, 카타콤베, 사도 바울 감옥과 참수터가 있는 세 분수 교회 등)



루터의 95개 반박문 앞에서(독일 비텐베르크성)

***참가자**

김주용, 최영민, 정병일, 이문영, 김성언, 박현옥, 나 성, 이귀우, 박재천, 황보정숙, 이상범, 오경숙, 최영남, 손옥분, 김경미, 김영애, 김인혜, 박현숙, 박혜영, 유영출, 윤영심, 이규성, 이윤복, 장영순, 정영희, 조이순. (직분 생략, 총 26명)

〈소감문〉

지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든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멜란히톤 그리고 그들을 적극 도왔던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와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요청하다 화형으로 순교한 얀 후스의 발자취를 따라 5개국을 탐방한 이번 여행기간 내내 흥분과 감탄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개혁자들을 탐방하는 시간에 연동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얀 후스가 화형 당하기 전 감옥에서 보낸 편지 구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늘 새기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 김경미 권사(강서구역)



브리스톨 한인교회가 공간을 사용하는 레드랜드파크교회(RPC) 예배당에서



독일 보름스 제국회의장 뒤편,
루터가 심문 받던 자리



체코 타보르의 얀후스박물관



이탈리아 트레폰타네(세 분수 교회) 입구에
걸려 있는 사도 바울의 참수 장면 부조

안녕하세요? 송요한, 이풀잎 선교사입니다!



유럽 종교개혁 탐방의 첫 일정이었던 영국 일정을 2박3일간 저희 가정이 함께하게 되어 정말 깊은 감사와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브리스톨 한인교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국 레드랜드 파크 교회 건물의 한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영국교회들 대부분이 공간을 민간에 대여하여 교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의자를 매 주 다시 놓아야 하고 십자가도 걸어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저희 예배 공간을 둘러보신 연동의 어른들이 둥글게 둘러서서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찬양도 함께 크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부모님께서 산후조리와 육아를 도와주시던 시기에 느낀 것과 같은 든든함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이 대부분인 브리스톨 교회에 든든한 기도의 지원군들이 직접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성경책과 학용품도 선물해주셨습니다. 요즘 브리스톨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매일 한 장씩 성경 녹음 하기에 도전 중인데 한글이 어렵다며 영어로 읽던 아이, 핸드폰 앱으로 읽던 아이, 부모님 성경으로 읽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한글성경이 생겼다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읽고 있습니다.
첫 한영사전을 번역하고 신구약전서를 번역하셨던 게일 목사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 이 곳에서 다시 한글로 또박또박 성경을 읽는 아이들의 입술에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 일정으로 근처 바스(bath)에 도착하여 게일 목사님의 묘 앞에서 손녀분들과 영국노회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일 목사님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여생을 보내셨던 집도 방문하였습니다. 세대와 공간을 넘어 함께 이 땅을 밟고 있음에 감격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길고 흐렸던 겨울이 물러가는 봄의 문턱에 햇살처럼 찾아와주신 귀한 연동가족의 방문 덕분에 2박3일의 여정을 행복하게 보내고 돌아와 다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기도와 말씀, 두 기둥이 굳게 세워진 브리스톨 한인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린 제작자 안아영, '젊은 장인'으로 주목





한기석 은퇴장로, 최민자 권사의 며느리인 안아영(남편 한왕수)이 바이올린 제작으로 각종 콩쿠르를 휩쓸며 '젊은 장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2세의 그녀는 뉴욕타임즈(NYT)의 주목을 받으며 현지시간 4월 4일자에 "바이올린 제작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소개되었다. 8살 때부터 바이올린의 매력에 푹 빠져 17살에 미국, 20살에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며 바이올린 제작을 배워온 그녀는 바이올린을 오로지 전통 방식으로만 제작한다. 짧게는 5년, 길면 10년간 건조한 거친 나무를 소재로 칼과 톱, 끌 등을 이용하는 전통 기법으로 한 개당 수개 월 동안 만드는 바이올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100~200년 뒤에도 연주될 악기를 위해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 / 진상협 기자.

이경아 집사, 사업장 이전







작년 12월 사업장을 확장 이전한 이경아 집사(신내구역)는 3월 23일(토) 구역식구들과 교구담당 목사인 계대윤 목사를 모시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이전 예배와 봄심방 구역예배를 함께 드렸다. 계대윤 목사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부합하는 말씀을 준비해오셔서 가정마다 기도하고 축복해주셨고, 예배 후 다 함께 식사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경아 집사는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기존의 유아 숲체험 교육사업(숲파티 포레)과 함께 파티와 모임에 공간을 대여해주는 공간대여업(공간숲 갈매)을 추가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

- 숲파티 포레 : https://www.partyforet.com
- 새 사업장 주소 : 구리시 갈매동 현대 스칸센B동 100호
- 상담 및 문의 : 010-5205-9253 (이경아)

‘전도폭발’ 노방전도





3월 21일(목) YBS 전도폭발(장석 목사)에서는 현장실습으로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관계전도’를 했다. 간식, 물티슈, 전도지를 준비해 목/토요일반 9~10명이 참석했으며, 3월 7일(목)부터 시작해서 총 8회했고 5월 16일(목)과 25일(토)에 종강했지만 6월 말까지 계속 노방전도 할 계획이다. 5월 19일(주일)에는 전도지를 받았던 2명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다. / 이지원 기자

재활용실 대청소와 재정비



3월 23일(토) 권사회(회장 양연화 권사)는 새벽기도회 후에 임원과 신임 권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재활용실을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대청소는 판매장에 걸린 옷, 신발, 가방, 책, 그릇, 장난감 등을 비롯해 창고에 보관 중인 옷들을 대폭 정리하고 공간을 재정비하며 구석구석 먼지를 쓸고 닦아냈다. 앞으로 권사회에서는 그동안의 재활용실 운영방침을 바꿔 교인들께 옷으로만 한정해 재활용품을 받아 판매하기로 정했다./ 박현미 편집장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라”라는 주제와 김주용 위임목사의 말씀으로 3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토 6시)에 본당에서 드려졌다. 하놀 찬양팀의 찬양 후 대표 기도, 성경 봉독, 특송, 말씀, 결단 찬양 순으로 예배를 드렸다. 30일(토) 기도회 후에는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하였다. 고난주간에 특별새벽기도회에 동참함으로 주의 부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보냈다. / 주태성 기자





3월 25일(월) 오전 5시 30분	
찬송	288장(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	김성영 장로
성경	골로새서 2:6~7
특송	1교구
말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결단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3월 26일(화) 오전 5시 30분	
찬송	33장(영광스런 주를 보라)
기도	이호진 장로
성경	시편 25:15
특송	2교구
말씀	주만 바라보라
결단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3월 27일(수) 오전 5시 30분	
찬송	182장(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기도	최은주 장로
성경	예레미야 17:7~8
특송	3교구
말씀	물 가에 심겨진 나무
결단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3월 28일(목) 오전 5시 30분	
찬송	496장(새벽부터 우리)
기도	최현수 장로
성경	시편 126:5~6
특송	4교구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결단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3월 29일(금) 오전 5시 30분	
찬송	144장(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	김진호 장로
성경	시편 22:1
특송	5교구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결단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3월 30일(토) 오전 6시	
찬송	95장(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기도	김대진 장로
성경	시편 43:5
특송	당회원(교역자 포함)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단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문화를 통해 경험하는 고난주간 특별 수요기도회



3월 27일(수) 수요기도회는 문화를 통해 경험하는 문화예배로 드려졌다. 다올찬양팀의 찬양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죽음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욥 30:23)" 말씀 후 바리톤 이응광(스위스 바젤 오페라극장 전속가수)과 피아니스트 이소영이 '베드로의 고백' 외 3곡을 말씀과 함께 들려주었다. 이응광은 지난 11월 28일(화) 캐럴인 서울 캐럴음악회에 함께 했었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고난주간 수요기도회에 초청했다 ./ 김종은 기자

미국 장로교 총회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5월 7일(화) 오전 10시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미국 장로교((Prebyterian Church USA: PCUSA) 총회본부 선교국의 윌슨 케니디, 르네 마이어스 장로와 목회국의 김삼영 목사가 연동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미국 장로교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 연동교회가 게일 목사의 선교정신으로 선교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미국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한 역대 선교사들을 기리는 의미로 김주용 위임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에도 제3지대의 선교협력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며 기도제목을 내놓았고 담화 후 연동역사관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감사패는 향후 연동역사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 최영민 목사

130주년 기념 130인 엮음 성경필사 감수



3월 17일(주일)과 24일(주일) 성경필사 감수위원들은 1부예배 후부터 209호와 더게일홀에서 형식 감수를 진행했고, 4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401호에서 분량 필사 후 제출건에 대한 감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감수자는 20명이며 토요일과 주일에 감수하지만 형편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하고 있다. 5월 19일(주일) 기준 성경필사 완료자는 37명이다. / 이지원 기자

*개역개정판 성경책 : 1차 감수 - 2차 감수(다른 감수자) - 반출(오류 있을 시) 혹은 완료(오류 없을 시)

부활주일과 축하음악예배





3월 31일 부활주일과 성례주일을 맞아 1,2,3부 예배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예배 후에는 권사회(회장 양연화 권사)에서 준비한 부활절 달걀을 전 교인에게 나눠주었다. 특별히 2부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2부예배)을 진행했다. 마당에서는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의 가정예배사진전이 열려 오고가는 교인들의 발길과 눈길을 모았다.

***세례자**: 기경록, 김민지, 문명자, 신유진, 이정순

***입교자**: 김연빈, 김예빈, 성채은, 최가은



이 날 예배는, 예레미야 3장 22-23절, 요한계시록 3장 20-21절 성경봉독(1부 라신현 권사, 2부 송영옥 권사) 후에 김진호 장로(1부), 류관식 장로(2부)의 기도가 이어졌고 연못골찬양대(1부)의 "부활의 주님"(이호준 곡), 부용찬양대(2부)의 "부활승전가"(김민아 곡), 게일찬양대(3부)의 "우리 주님 사셨다"(이호준 곡) 찬양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가 "예배는 천국의 현재시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후예배는 게일찬양대가 주관해 부활주일 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게일찬양대 대장인 송영옥 권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하놀찬양팀의 찬양 후에 조형욱 집사(총무)의 기도와 유미현 집사(서기)의 성경봉독(행2:32)에 이어 계대윤 목사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부활절 칸타타는 "마지막 7일"(이호준 곡)의 8곡으로 채워졌다.





칸타타는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부활까지 7일 동안의 예수님 행적과 말씀을 중심으로, 1. 서곡, 2. 호산나, 3. 성전에서, 4. 내게 있는, 5. 당신이, 6. 못 박아라, 7. 십자가로, 8. 우리 주님 사셨다로 구성되었다. 게일앙상블과 목정수 집사의 해금 연주가 함께했고, 곡과 곡 사이에는 관련한 성경 내용을 김윤기 목사, 고미경 권사가 남녀 내레이터가 되어 전했다.

게일찬양대원들은 이날 칸타타 내용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당시 복장 느낌이 나도록 옷을 입었고 군데군데 연기까지 더해 뮤지컬 분위기를 냈다. 교인들은 칸타타를 통해 예수님 공생애에서 마지막 7일 동안 벌어진 사건과 말씀들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박현미 편집장

2024년 연동요람 배부

4월 7일(주일) 사무처에서 '2024년 연동요람'을 배부했다. 자원절약과 연동교회스마트요람(모바일앱)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며 부수를 400부로 줄여 2주만에 모두 소진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과년도 요람 및 구역일람표는 사무처로 가져오면 일괄 폐기한다. 올해 요람 표지는 최영민 목사가 디자인했다./ 김종은 기자



하이청년공동체 세미나





3월 24일(주일) HI청년 공동체는 '세대를 넘어 시대를 말한다'는 주제로 오후 2시 45분부터 본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강사로 초빙된 장동철 안수집사(전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는 연동 청년 공동체가 세대 간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임을 강조하였다. 세미나 이후에는 교회 마당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와 교인들이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청년 공동체와 전 세대 교인들이 함께 교제를 갖는 행사가 이어졌다. / 임재철 기자

제3남선교회 친교의 밤





4월 6일(토) 제3남선교회(회장 김찬진 안수집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3년만에 친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부 동반 회원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회원이 모여 예배와 찬양 그리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 각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소한 선물을 마니또 방식으로 교환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고 전체 진행을 맡은 박종화 안수집사가 정성껏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도 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 간의 친밀함이 더욱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주님 안에서 회원들 간의 교류와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유기정 집사·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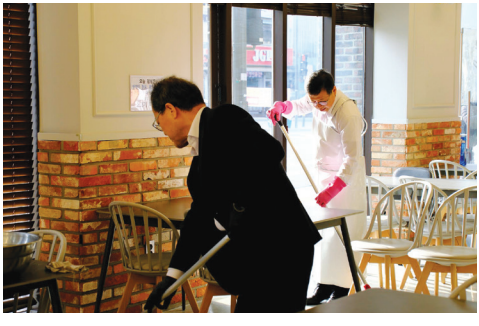
식목일 나무 식재





4월 5일(금) 교회마당에 총 11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 종류는 목단, 목수국, 홍송, 주목이며 이해순 공로(제기청량리회기구역)권사가 기증했다. / 이지원 기자

교회 대청소와 부활절 달걀 포장





3월 30일(토) 예비일 새벽기도회 후에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교회 대청소와 부활절 달걀 포장을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각 교구별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교회를 보니 부활절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오병이어의 집'에서 포장하였습니다. 이 날 권사회를 중심으로 각 여전도회와 친교부 회원들이 모여서 구운 달걀을 예쁜 투명 비닐에 넣고 끈으로 입구를 봉하였습니다. 부활절 계란 포장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삶은 달걀에 싸인펜으로 직접 예쁘게 그림도 그렸고,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거나 주일학교에서 달걀 포장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장 기술도 변하고 잘 깨지지 않는 구운 달걀로 대체되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삼오오 테이블에 모여 달걀 포장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업 중간쯤 많은 청년들이 도와주어서 더 활기차게 진행되었고 완성품이 금세 쌓여갔습니다. 부활절을 교회의 한 행사로 생각지 않고, 부활절 달걀을 이웃에게 나눠주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수연 집사·제4여전도회 회장

한식일 합동 추모 예식



4월 6일(토) 오전 11시 연동동산에서 '한식일 합동추모예식'이 있었다. 강철민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찬송(493장)과 기도(강사겸 장로), 성경봉독(임백송 안수집사)이 있은 후 장석 목사의 '복된 죽음(계 14:12~13)'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다. 장석 목사는 말씀을 통해 주 안의 복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과 남은 시간을 잘 보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임을 전하였다. 다같이 찬송가 492장을 부르고 장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하며 가정별로 시간을 보냈다. / 박윤신 기자

직원 수련회



4월 9일(화) 사무처 직원들은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직원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다. 총 9명 참석했으며, 총무부장인 최기식 장로가 동행했다. 필그림하우스에서는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내가 읽었던 천로역정을 떠올려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걸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게일 목사님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아쉽게도 연동교회 1대 목사님이심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해설자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든든히 점심을 먹고 청심빌리지 둘레길 산책 후 카페에 들러 차와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교회로 돌아왔다.

/ 김종은 기자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세미나



4월 10일 수요기도회는 영성훈련부(부장 최영익 장로) 기독교가치관교육팀(팀장 이혜석 권사)이 주관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세미나로 드려졌다. 이날 기도회는 이재욱 목사(참사랑교회 담임목사,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성경적 가치관)'라는 주제의 말씀(로마서 12:1~2)을 들은 후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 이재욱 목사는 가치관, 신앙, 성(性)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로 확립하고 이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양진실 기자

[안내합니다]

〈2024 연속기획포럼〉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

팬데믹 시기를 지내오며 한국교회는 변화된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코로나 시대 전후 한국교회의 개혁 이슈들을 최근의 트렌드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3회 연속포럼을 개최하기에 연동 교우들께 안내합니다.

- **제목: [2024 연속기획포럼]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
- **일시: 2024년 6월 13, 20, 27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 포럼일정

▶ 6/13(목) 신앙 | 주체적 신앙과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

사회. 남오성_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발제1. 방인성_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발제2. 지용근_목회데이터연구센터 소장

논평. 김영준_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청년위원회

▶ 6/20(목) 교회 | 민주적 교회 운영과 교회의 건전한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 김종미_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발제1. 백종국_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발제2. 류지성_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논평. 강경태_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청년위원회

▶ 6/27(목) 선교 | 사회선교와 퍼블릭 처치(Public Church)

사회. 임왕성_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발제1. 박득훈_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발제2. 정재영_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평. 서동진_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청년위원회

⇨ 취지문 보기(남오성 공동대표): https://bit.ly/3y3lvtu

⇨ 신청하기: https://bit.ly/44np8GR



둘레길 걷기를 한 '연주모'



4월 10일(수) 연동교회 주차 봉사 모임인 '연주모' 회원들은 주차요원들의 체력증진과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양평군 갈산공원 일대에서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배부장인 박은화 장로의 인솔하에 만개한 벚꽃 터널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싱그러운 봄의 향기를 한껏 즐긴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로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후원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주모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종화 안수집사·연주모 총무

제3여전도회 수련회



4월 13일(토) 제3여전도회(회장 김수연 권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김현철 목사의 기도 후 출발해 식사를 먼저 하고 기념관에 도착했다. 25명의 회원들은 해설을 들은 후 자유롭게 1, 2전시실을 관람하고 기념관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후 예쁜 카페에서 티타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이지원 기자

소그룹 하기폰오카리나 버스킹





4월 18일(목) 하기폰오카리나는 오후 5시에 교회 앞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했다. 장석 목사의 기도 후 7명은 총 18곡을 연주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연주하고 마쳤다. / 이지원 기자

미목원의 제1회 "뉴프론티어세미나"가 본당에서 열렸다



5월 1일(수) 수요기도회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미목원, 이사장 김지철 목사)이 주관하는 제1회 뉴프론티어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뉴프론티어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의 전문 연구위원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위한 신학을 모색하는 학술모임으로, 그 첫 번 세미나를 "핵개인 시대의 외로운 크리스천"을 주제로 연동교회 본당에서 열었다. 미목원의 운영위원인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는 최원준 박사(안양제일교회, 성서학 분야)의 〈아담의 독처, 예수님의 거처; 외로움과 홀로됨의 성경적, 목회적 고찰〉, 송용원 박사(장신대, 조직신학 분야)의 〈"두 개의 산" 번영(prosperity)에서 번성(flourishing)으로〉, 신현호 박사(장신대, 실천신학 분야)의 〈외로운 그리스도인, 온세대 교회에서 길을 찾다〉 발표 뒤에 김주용 위임목사가 진행한 논찬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 함께한 연동교인들과 단체사진을 찍은 후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의 감사인사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김지철 이사장은 "세미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 연동교회와 교인들께 감사"를 전한 후 "이단종교가 가장 강조하는 게 교회보다 앞장 서서 외로움을 위로하고 흡수하는 역할"이니만큼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홀로 계신 교인들을 먼저 찾아가 위로와 기도, 환대해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길 당부했다. / 박현미 편집장

연못골 찬양대 수련회



4월 20일(토) 연못골 찬양대는 오전 8시에 강화수양관으로 출발해 오후3시까지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호세아 6장1-3절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목의 설교로 테너 대원인 박영태 목사가 간증형태로 찬양과 더불어 진행하였다. 강화수양관에서 바비큐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멍때림카페로 이동해 ‘멍때림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감상하고 돌아왔다. 오전에는 좋은 날씨였지만 점심무렵부터 비가 왔음에도 은혜롭게 일정을 채운 하루였다./ 진상협 기자

출판선교팀 ‘연못골’ 편집부 수련회





4월 27일(토) 연못골 편집부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기자들 가족 및 전임 주간들과 함께 상반기 수련회를 가졌다. 박요한 지도목사와 김성영 부장장로가 함께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오전 10시경 현지음식으로 허기를 채운 후 오후에는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나무숲으로 자리를 옮겨 박요한 목사의 말씀과 김성영 장로의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후에는 이경아 기자의 레크리에이션 진행과 총무 진상협 기자의 말씀 보물찾기를 하며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온전히 느끼고 돌아왔다./ 진상협 기자

중고등부 선교비전트립 바자회





4월 14일, 21일(주일) 중고등부는 교회 마당과 오병이어의 집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7월에 있을 중고등부 선교비전트립을 홍보하고, 수익금으로 경비를 지원하고자 준비된 자리이다. 3월부터 모아진 후원 물품이 예상보다 많아져 한 주 이른 14일 주일에도 바자회 물품 나눔을 진행하였다. 21일에는 후원 물품뿐 아니라 부침개, 떡볶이, 샌드위치, 에이드 등 전날부터 준비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였고, '행복나눔 구두닦이'를 기획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어른들의 구두를 닦아 드리기도 하였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선교비전트립의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구두닦이에 참여하여 더 의미 있는 바자회가 되었다. / 고현수 기자

구두 닦는 것이 쭈그리고 앉아 닦아야 해서 힘들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흔쾌히 구두를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에 구두를 닦아볼 기회가 없는데, 같이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재밌었고, 구두에 손을 넣어서 닦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더러우니까 손을 넣지 말라고 하셔서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가는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세요. / 윤재윤 학생(고등부 1학년)

구두를 닦으면서 옛날에 이 일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잘 닦지 못해서 장로님이 스스로 구두약 바르시고 닦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같이 못 가지만, 다녀오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안영찬 학생(고등부 2학년)

누가 봐도 처음 하는 애들이라 잘 못하는데 돈을 받고 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숙했지만 다들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다면 더 낮은 금액으로 해드려야겠다고 생각되었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후원금이 모인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워오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비전트립을 안전하게 잘 다녀 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혜진 학생(고등부 2학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서툴러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가져가셔서 직접 닦으셨습니다.^.^ 구두닦이 이벤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구두를 닦아 드리면서 제대로 닦는 법을 배우고, 그 사이 덕담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른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서비스로 안마를 해드렸는데 다들 너무 시원하다고, 제가 해드린 안마가 제일 시원하다고 하셔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많은 걸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넓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며 갈등이 있어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예나 학생(고등부 3학년)

권사회 수련회



4월 24일(수) 권사회(회장 양연화 권사)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경기도 용인시 소재)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고 한국기독교 200주년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11월에 개관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2개의 전시실과 영상전시실, 오디오전시실, 마르튀스채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오전 8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해 10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도착, 1,2층 기념관을 투어하고 기념관 야외에서 김주용 위임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 장소를 이동해 점심식사 후 용담저수지 둘레길을 돌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느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기 어려웠던 권사들은 오랜만에 다 함께 즐거운 봄날을 누리는 하루를 보냈다. / 박현미 편집장



연동 숲속 아기학교 5기 수료식





수료증과 선물

4월 27일(토)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에서 '연동숲속아기학교 5기' 수료식이 있었다. 총 8명의 아이들이 함께한 5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습3:17)'라는 주제로 3월 30일부터~4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어린이와 양육자들은 예배와 함께 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음악, 미술, 신체, 요리 활동 체험 그리고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시간(센싱더스토리)을 가졌다. 아이들은 생후 12~36개월이라는 월령차가 있었지만 스스로 혹은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활동하였다. 5주 동안 수고한 영유아 유치부 교역자들과 찬양, 율동, 교육 담당 선생님, 식사와 간식을 책임져 준 선생님, 사진 촬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 박윤신 기자

임산부 축복기도





복이와 축복이에게 보내는 편지

4월 28일(주일) 영아부(부장 이현승)에서는 영아부 예배 시간 중에 임산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첫아이 복이(태명)의 아빠, 엄마와 세 번째 아이 축복이(태명)의 엄마, 이렇게 두 가정이 앞으로 나올 때 영아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축복송을 부르며 환영해주었다. 환영 축복송 후에 아빠와 엄마가 복이와 축복이를 위해 준비해 온 편지를 읽어주었다. 이후 선물을 나누고 영아부 표경림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무리 한 뒤 가정별로 사진 촬영을 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박윤신 기자

제1여전도회 수련회





5월 2일(목) 제1여전도회(회장 최민자 권사)는 오전 8시에 출발하여, 지원하는 교회 중 하나인 대전 예안교회를 방문하였다. 회원 68명이 함께 대전 예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방문 지원금을 전달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사역에 필요한 간식을 지원하였다. 예안교회 목사 부부와 동행하신 집사 한 분도 여전도회 회원들과 같이 대전 시내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한정식으로 친교를 나눴으며, 이후 회원들은 옥천 하늘물빛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아로마 족욕을 하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오후 4시경 교회로 출발했다. 오는 길 휴게소에서 따끈한 우동으로 수련회를 마무리 하니 몸과 마음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였다. / 최민자 권사·제1여전도회 회장

세계선교위원회 실행회의





5월 11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는 경기도 청평에서 실행회의를 실시하고 이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로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20여 명의 세계선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참석한 가족들을 향하여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130년 역사의 교회인 만큼 세계선교를 위한 사명감을 마음에 품고 임하자'는 말씀을 김주용 위임목사가 전했다. 실행회의에서는 선교지 후원 연장 건 (베트남 엄준환 선교사) 및 다음세대 (청년부 단기선교, 중고등부 비전트립)의 선교후원이 의결되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신협과 함께하는 유럽종교개혁 탐방'의 소감을 정영희 권사에게 듣고, 게일 목사 묘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며 받은 귀중한 물품을 회람하고, 연동역사관에 전달하여 사료로 보존, 전시하기로 하였다.

/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5월 19일(주일), 26일(주일) 2주간 교회 마당에서는 사회봉사부(부장 박재천 장로) 주관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우리교회가 매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지속해온 행사 중 하나로, 특히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등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성도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이웃의 어려움과 지역 섬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임재철 기자

오병이어의집 주방 및 주차장 공사





5월 20일(월)부터 29일(수)까지 오병이어의집 주방공사를 시원주방산업에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주방기구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퇴식대 수정작업, 주방바닥작업, 후드설치와 옥상 배기팬 교체 등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준비를 할수 있도록 에어컨 재설치공사까지 진행된다. 공사로 인해 5월 26일(주일) 오병이어의 집은 휴무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5월 20일(월)부터 6월 7일(금)까지 성진건업에서 공사할 예정이다. 노후된 바닥과 벽체, 천장을 보수하고 도장하며, 비가 오면 역류하던 물받이도 다시 공사한다. 창고가 부족했던 만큼 벽 주변 어지럽게 쌓여 있던 물건들도, 선반을 공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가능하게 했지만, 바닥 에폭시 공사로 5월 29일(수)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시에는 대호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김종은 기자

어린이주일 온세대 예배



연합 찬양 율동팀



주일학교&게일 연합찬양대

5월 5일(주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주일 3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렸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학생과 가족들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의 모든 순서도 온세대가 함께했다. 주일학교 연합 찬양·율동팀의 찬양 인도, 고등부와 청년부로 구성된 반주팀, 신앙 1세대 봉헌위원, 김효찬 학생&천재윤 교사 합동 기도, 성경봉독(윤희성 학생 가족), 주니어 앙상블의 특별찬양 그리고 연합찬양대(주일학교&게일 찬양대)까지 모두가 함께였다. 연합 찬양곡 중 '연못골의 꿈(김주용 위임목사 작사 & 이성은 목사 작곡)'은 연동교회 어린이를 위해 만든 곡이다. 뒤이어 김주용 위임목사의 어린이를 위한 설교 '하나님의 나팔꽃(삼상17:45)', 어른들을 위한 설교 '여호수아의 길(4): 나와 내 집은(수24:14)'이 이어졌다. 축복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기다리던 2부 순서가 시작되었다. 맛있는 음식부터 전통놀이, 추억의 뽑기, 사진촬영까지 하루 종일 내린 많은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비'라고 생각될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 / 박윤신 기자



활짝 핀 목사님 나팔꽃



웃음꽃 핀 어린이들



맛있는 먹거리



즐거운 놀거리

서울노회 어린이교육대회





5월 11일(토), 제63회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가 약수교회에서 열렸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미래가 아이에게 있습니다'(사무엘상 16:1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8종목(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성경암송, 성경동화, 글짓기, 그리기, 독창 • 중창)은 본당 및 각 대회 장소에서 오전 대회로 진행되었다. 점심식사 후 오후 대회인 찬양율동은 본당에서 치러졌으며 참가자가 모두 참관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고사, 영어성경암송, 글짓기, 찬양율동 등 4종목에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 총 23명이 참가하여 올해도 전원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두 달여 간 교회에서 모이거나 가정에서 열심히 준비한 모든 참가자 연습과 공부를 도와주신 전도사님 및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입상자 중 유년부 찬양율동 종목을 제외한 금상, 은상 수상자는 6월 6일(목)에 구파발교회(은평구 진관동 소재)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성경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부서(학년)	이름
성경고사	유년부(1학년)	박효준(금)
	유년부(2학년)	박혜빈(금)
	초등부(3학년)	김하슬(금)
	초등부(4학년)	박윤아(은)
	소년부(5학년)	김성준(금), 계현준(은)
	소년부(6학년)	박찬빈(금)
영어성경암송	초등부(4학년)	박서영(은)
	소년부(6학년)	용주하(동)
글짓기	초등부(3학년)	주진연(동)
	소년부(5학년)	주아연(은)
찬양율동	유년부(1-2학년)	남유솔, 부서은, 송해나, 허율(금)
	초등부(3·4학년)	김선, 김소연, 박소은, 한나은(금)
	소년부(5·6학년)	김유진, 남다혜, 정하율, 홍다혜(금)

어버이주일 청년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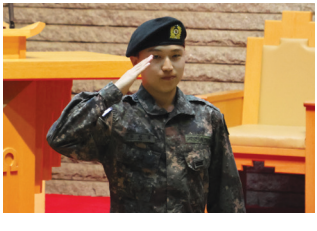
5월 12일(주일)은 어버이주일로 드려졌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여호수아의 길:상식과 비상식의 경계에서”(여호수아 2:1~7)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청년부에서는 교회 마당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들께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 선물을 드렸다. 또한 어버이와 교회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경로잔치를 준비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오병이어의 집에서 70세 이상 장년들께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귀한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년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후원 행사를 더게일홀 앞마당에서 열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교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후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 오수희 기자

첫 휴가 신고식





4월 28일 주일 2부 예배
박성준 군(남)
박재범 집사, 정미령 집사의 아들/ 용인 구역
*임정순 은퇴권사 손자





5월 19일 주일 2부 예배
김한결 군(남)
김효민 집사, 이경아 집사의 아들/ 신내 구역

첫 출석아기




4월 21일 주일 2부 예배
노재헌 아기(남, 2022년 4월 15일생)
노성은 성도, 박기연 성도의 아들
*노환규 집사, 김효숙 집사의 손자

사랑하는 ♥재헌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영육이 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가길 기도한다. 아빠, 엄마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자!




4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홍신희 아기(여, 2024년 1월 19일생)
홍인욱 집사, 고윤아 집사의 딸/ 강서구역
*홍태의 공로집사, 고수경 권사의 손녀

건강하게 엄마 아빠 오빠의 곁에 와준 ♥신희.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신희가 건강하고 밝고 맑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아세례




5월 5일 주일 2부 예배
한리원(여, 2024년 1월 2일생)
한승수 성도, 홍수민 성도 딸/ 압구정청담삼성구역
*한기석 은퇴장로, 최민자 권사 손녀

사랑하는 리원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래 우리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리원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5월 5일 주일 2부 예배
홍신희(여, 2024년 1월 19일생)
홍인욱 집사, 고윤아 집사 딸/ 강서구역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신희가 백일 동안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 백일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선물같이 찾아와서 행복과 웃음만 주는 신희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아이로 자라기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세요.

새가족 소개


서선숙(5교구 분당구역)


안동준(4교구 제기청량리회기구역)


여동훈(청년부), 박수현(5교구 연지구역)


이문희(3교구 한신1구역)


정선희(4교구 길음구역)


진현주(1교구 경인구역)


이정관·정신영(5교구 씽씽연동7구역)


최순기(2교구 성북1구역)

6, 7월 행사 안내

월	일	행사(예정)
5	29일(수)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오르간 연주회(수요기도회시, 본당)
6	6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16일(주일)	기드온 순방예배
	23일(주일)	북한선교주일
	28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30일(주일)	새가족 만남의 날(오후 1시, 베들레헴예배실), 새가족 수료예배(오후예배시, 본당) 당회(오후예배 후, 위즈덤하우스)
7	1일(월) - 11일(목)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5일(금)	구역지도자 위로회(정오 12시, 오병이어의 집)
	7일(주일)	맥추감사주일, 성례주일, 제직회(오후예배 후, 본당)
	13일(토) - 14일(주일)	영아·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22일(월) - 8월 1일(목))	중·고등부 선교비전트립
	26일(금) - 28일(주일)	유년·초등부 여름수련회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기식 장로)

■ YD러브릿지센터(청년관) 청년 주거복지시설 정상 운영 중 (12명), 발달장애 아동 1명 교육비 지원 중(추가 아동 선별 중)
■ 연동복지재단 사업 안내 : ①다문화 복지팀 : 외국인 가정의 한국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종로구청 복지과, 종로 다문화 가족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등 대상자 선정 후 진행 중 (1명),
②러브릿지 "溫(ON)" : 연동복지재단, 연동교회 청년부, 연동 신협이 주관하여 서울 5대 쪽방촌 중 가장 규모가 큰 창신동 쪽방촌에서 창신동 쪽방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50가구에 생필품 및 식사 지원 진행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러브릿지 "溫(ON)"

▶ 3/30(토), 4/27(토)에 각각 진행된 3회, 4회 러브릿지"溫"캠패인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다. 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매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와 물품을 조사하고, 연동복지재단이 검토하여 물건을 구입하며, 연동신협과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후원, 연동교회 권사, 집사님들의 도시락 준비, 연동교회 청년부의 물품 포장과 배달로 이루어진다.
※캠페인은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과 사람,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3월 스페셜데이 "슬기로운 봄"

▶ 3/8일(금)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스페셜데이로 슬기로운 봄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미리 봄을 느끼며 봄 관련 놀이를 즐겼으며 어린이집이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월 "모종 심기"

▶ 식목일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모종심기를 진행했다. 어떤 모종이 있는지 살폈다. 도움을 받아 모종을 심어보고 모종에 물을 주며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며 식물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3월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식지원"

▶ 3/21일(목)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 치킨 간식을 지원 받았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하고 간식시간에 함께 모여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다. 모처럼 맛있는 간식과 함께 담소하며 아동들은 감사에 대해 생각하고 소감을 나눴다.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이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원해본다.



4월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연계사업"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이랑 노는 월요일'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 추천 도서들을 활용한 눈높이 맞춤 논술 수업으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진행됐다. 이번 논술 수업을 통하여 아동들이 책 읽기를 즐거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모함은 물론 본인의 표현력을 기르고 생각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신협 현황

(3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592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090,189	34,313,140	1,681,498	938,196	42,023,023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27,431,172	740,245	68,162	13,783,444	42,023,023

(4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591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133725	35,826,665	1,700,098	820,001	43,480,489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28,294,947	748,495	80,940	14,356,107	43,480,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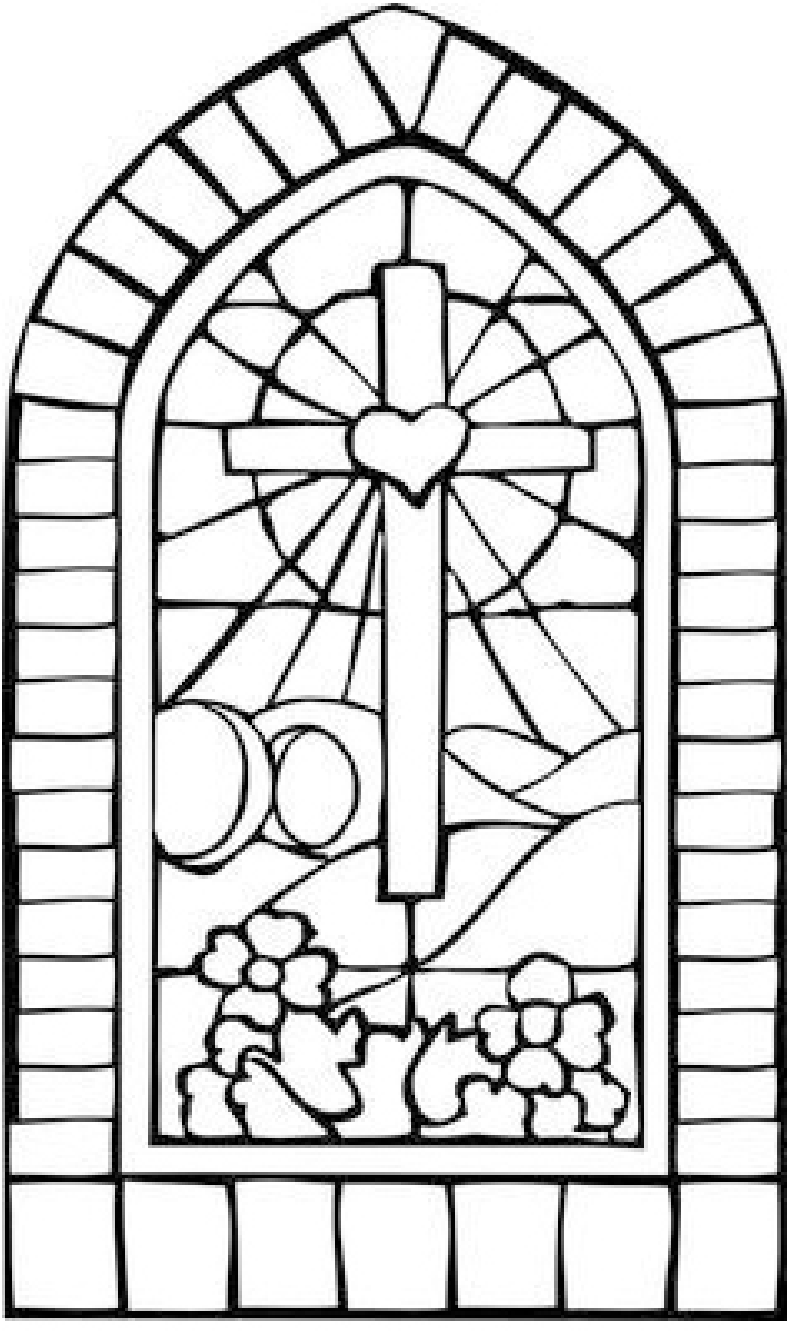
목양위원회

■결혼식

- 김정미(김원식 님, 유금례 님 딸/영등포구로구역) 양과 이거랑(이동원 님, 이형자 님 아들) 군 - 4월 27일(토) 정오 12시 본 교회당
- 박현규(박병희 님, 이경희3 집사 아들/안국평창구역) 군과 김수경(김세권 님, 계미환 님 딸) 양 - 4월 28일(주일) 오후 3시 토브헤세드
- 구본형(구자학 장로, 나현숙 권사 아들/길음구역) 군과 이예진(이종인 권사, 장명희 권사 딸) 양 - 5월 18일(토)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
- 명상우(명노풍 안수집사, 정근숙 집사 아들/길음구역)군과 홍수연(홍석윤 성도, 이미숙 성도 딸) 양 5월 25일(토) 오후 1시 20분 DMC타워웨딩 3층 라피네홀

■장례식

- 이경희 성도(유연숙 권사 모친, 이병석 은퇴장로 장모, 이영은 집사, 이에스더, 이준섭 성도 외조모, 김지훈1집사 처외조모, 노현정 성도 시외조모/행당금호구역) 별세, 3월 21일 경기도 안성 선산에 모심
- 박영진 집사(박은옥 공로권사 부친, 김상대 공로안수집사 장인/수유구역) 별세, 3월 28일 서울현충원에 모심
- 유혜영 목사(홍순언 은퇴장로 부인, 홍주현 집사, 홍동균 집사, 홍탁균 집사 모친/1983년~1997년 연동교회 전도사로 시무) 별세, 3월 22일 연동동산에 모심
- 이용희 명예권사(오광선 은퇴집사, 오광순 이명권사, 오광일 집사 모친, 임영수 집사 장모, 임경숙 집사 시모, 임하연 성도 외조모) 별세, 4월 1일 연동동산에 모심
- 방순영 사모(故 김형태 원로목사 부인, 김혜선 집사 모친/동작관악구역) 별세, 4월 15일 연동동산 모심
- 임순규 성도(김정하 집사 모친, 장선업 안수집사 장모, 장경희, 장윤희,장형윤 성도 외조모/성북1구역) 별세, 5월 3일 하늘안추모공원에 모심
- 이기춘 집사(서양임 집사 모친, 채수원 협동안수집사 장모, 채윤영 성도 외조모/동대문구역) 별세, 5월 4일 정읍 이평면 선영에 모심
- 이우옥 성도(박성재 집사 모친, 유병조 성도 장모, 유재민, 유성민 성도 외조모/은평구역) 별세, 5월 11일 연동동산에 모심



(이름: 연락처: 소속:)

2-3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김예서(유년부)-6903



강한나(유치부)-3385



나경남(이화)-7844



차서은(유치부)-7471

□조선영(명일하남)-0117 □진예현(초등부)-7541 □성열숙(낙산)-0647
□윤문희(성북2)-9147 □임현정(낙산)-9643

---

*4-5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보내주세요. 5명을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6권 614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4년 5월 26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박요한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오수희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주태성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그대가 함박 웃으니 행복합니다.
덩달아 웃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함께 웃으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4-5월호(614호)